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전통문화마을, 문화예술 교육·기획 공연·지도자 양성·사회복지 실현 등 설명

(사)전통문화마을은 지난 3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업의 시행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총괄하고, 지역 구분없이 공모를 통해 17개 시도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이에 따른 총 지원예산은 800여억원이다. 이는 예술강사 개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한 보조금 총액이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마을은 올해 전북 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 대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8개 분야에 예술강사 388명을 601개교에 파견해 약 9만8,000명의 학생에게 총 10만3,300시간의 예술교육을 실시했다. 총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전국 5위 규모다. 전통문화마을의 설립 목적은 문화예술의 보급과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

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 실현에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보급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 △지역 문화예술 관련 자원 조사 및 발간사업 △문화예술 관련 기획 공연 사업 △전통문화예술 전승 사업 △문화예술 관련 지도자 양성 사업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성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복지 실현 사업 △기타 분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2022년 관리 강사 현황을 살펴보면 예술강사 401명, 무형원 체험강사 15명, 기타 42명 등 총 458명이다. 이에 따르면 매년 3월~12월까지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 교과수업 등의 예술 교육 실시, 지역별 수요·특성·환경 등에 기반 학교 문화예술교육 추진 및 제공, 국악분야를 제외한 교육 기자재 무상 지원 등이 있다. 운영학교 8,557개교를 선정하고, 강사 5,040명을 선발 배치한다. 또 강사료는 1시수당 4만 3,000원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3대 사회보험도 지원한다. 이외에 급식비, 교통비, 근로자의 날 수당, 휴업 수당, 건강 진단, 학교 사전방문 보조금 등은 별도 지원된다. 관련 분야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민화·에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다. 다만, 학교급 및 분야별 지원이 교육과정과 다를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지난 4일 고인돌박물관에서 다도잡지 월간 '차의세계'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고창 차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고창, 역사·전통 깃든 우리나라 향차 중심지”

‘선운사 작설차’ 등 고창 차 문화유산 국제 위상 조명 위한 학술대회

‘선운사 작설차’로 대표되는 고창군의 전통 차 문화를 집중 조명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 명승지로 지정된 병바위와 두암초당 전파바위가 중국 최대 녹차 생산지인 푸젠성 천관대와 상당히 유사하면서 다도 성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인돌 박물관에서 다도잡지 월간 '차의세계'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고창 차 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고창군 선운산은 우리나라 자생 차의 북방 한계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야생차는 백제시대부터 자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1766년 부

안현감이던 이운해가 버려진 선운사 일대 차를 이용해 칠향차(七香茶)라는 약용차를 만들며 남긴 '부풍향차보(扶風鄉茶譜)'에는 "선운사에서 좋은 차가 생산된다"고 썼다. 2008년 발견된 이제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관련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고창 부암초당의 존파암과 푸젠성 천관대의 비교(최석환-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 회장), △원파에서의 차의 전파와 영향(송경-중국차문화연구원, 비대면발표), △한·중 양국 향차문화의 발전과 방향(여열-중국강서성사회과학원수석연구원, 비대면발표), △고창 향차의 산업화 전망(박종철-순천대 교수), △부풍향차보에 등장하는 다구

와 향차연구(최성렬-조선대 교수), △일본의 말차(抹茶)와 전다(錢茶)의 발전과 한국 향차 산업의 영향(카게야마 스미오-일본 고베대 교수) 등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학술대회 기간 중 세계명차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한국의 녹차, 발효차, 중국의 명차 등을 선보이는 등 고창향차의 산업화를 위한 첫걸음이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은 차 재배지와 다도 성지를 모두 갖춘 곳으로 동아시아 차 문화 연구에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창 차의 지난 천년을 찾고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가족 향한 따뜻한 마음’ 시화작품 속에

김제 성인문해 거리시화전 ‘가슴을 울리는 어머니의 글’ 전시

김제시는 비문해학습자에게 기초문해교육 등 제2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교육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 김제시 성인문해 거리시화전 이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오는 17일까지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김제시 성인문해 거리시화전은 한글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늦깎이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일상을 담아 배움의 기쁨과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와 일기글 등을 모아서 전시한 것으로 한 글자 한 글자가 배움의 기쁨과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며 총 56점의 시화글이 전시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인제인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시화작품이 전시된 후 시민문화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분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한 작품 한 작품 읽어가시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시인 누군가가 시화작품마다 카네이션 꽃을 달아 주셨다”고 전하며 “거리시화전 전시작품 모두 가슴 따뜻해지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을 담은 글귀로 가족을 향한 가슴 울리는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의 기회를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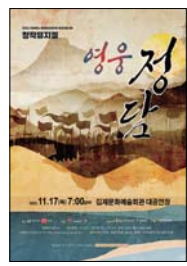


친 성인에게 기초적 학습권리를 부여하여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해교육을 통해 소통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성인문해 거리시화전은 문해학습자의 마음을 담은 시화작품 속 한 글자 한 글자가 배움의 일상과 삶의 애환을 담은 가슴속 이야기를 눈물로 써 놓은 것 같다”고 말하며 “성인문해 거리시화전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관람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호남 지켜낸 김제군수의 무용담, 창작 뮤지컬로

‘영웅 정담’, 17일 김제문화회관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7일 오후 7시 호남을 지켜낸 김제군수 ‘영웅 정담’이 창작 뮤지컬로 개최된다. 임진왜란 당시 육성에서 최초로 승리한 웅치전투의 영웅 정담! 오케스트라 단체 사단법인 드림필이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과 김제문화 알리기 공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창작된 뮤지컬 ‘단야벽골재 사냥이야기’에 이어 김제의 또다른 인물 정담 장군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온다. 창작 뮤지컬 ‘영웅, 정담’은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공연을 기대하며, 뮤지컬 배우, 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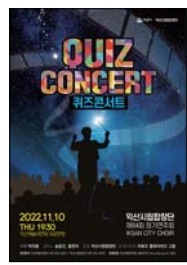


합창단 오케스트라 단원 등 40여명의 출연진이 협연으로 더욱 풍성한 공연을 준비했다. 관람료 예매는 오는 8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mjn.gov.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하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노태기자

영화음악부터 디즈니 만화영화 곡들까지

익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몸과 마음이 움직여드는 11월, 따뜻한을 전하기 위해 익산시립합창단에서 제84회 정기연주회 QUIZ CONCERT가 개최된다.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영화음악부터 팝송, 뮤지컬 곡들과 아이들을 위한 디즈니 만화영화 곡들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준비했다. 또한 공연 제목처럼 공연 중간 퀴즈와 댓글 이벤트로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기억에 남는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3월 이후 4시부터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1인 4매까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연 종료 후 익산시립예술단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익산시립예술단>)에 게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예술의전당(063-859-33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